

碩士學位論文

*The Sun Also Rises*에 나타난
사랑의 유형과 자아인식

指導教授 卞 鐘 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康 銀 英

2000年 8月

*The Sun Also Rises*에 나타난
사랑의 유형과 자아인식

指導教授 卞 鐘 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康銀英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年 7月 日

審査委員長 홍익상 

審査委員 권영권 

審査委員 박종민 

*The Sun Also Rises*에 나타난 사랑의 유형과 자아인식*

康 銀 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卞 鐘 民

Hemingway의 *The Sun Also Rises*는 1차 세계대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가 전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 관한 기록이다.

여주인공 Brett는 전쟁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잃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성성을 상실하여 여러 남자와 어울리면서 퇴폐적인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녀는 여러 남자와의 관계로 이 작품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이다. 말하자면 Brett를 두고 Robert Cohn, Jake 그리고 Romero가 사랑을 한다. 그러나 이 남자 주인공들의 Brett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기본적인 배경과 기질 차이로 인해 각각 다른 양상을 띤다.

Robert Cohn은 낭만주의자로서 이 작품의 낭만적 사랑을 대표한다. 그는 Brett와의 관계에서 사랑에 대한 환상을 고수한다. 그러나 그의 낭만성은 Brett는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Jake도 Brett를 사랑하나 전쟁에 참여했다가 생긴 상처 때문에 Brett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비극적이며 절망적인 인물이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상처로 인해서 그들의 사랑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상당히 절망적이고 안타깝다.

이 작품에서 Hemingway의 '이상주의적 영웅(ideal hero)'으로써 다른 인물들로부터 존경과 찬사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투우사 Romero는 투우에 필요한 완벽한 자질과 규범을 지니고 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의 모습은 Brett와의 사랑에서도 나타난다. 퇴폐적인 Brett를 사랑하면서도 투우에서와 같은 규범적이고 절제된 행동으로 자아를 잃지 않는 Romero의 순수와 용기 있는 모습은 Robert Cohn이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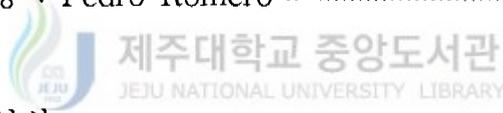
나 Jake와는 대조적이다. Romero의 이런 모범적 태도는 결국 Brett를 떠나보내지만 이로 인해 Brett는 퇴폐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Robert Cohn, Jake, Romero 중 어느 누구도 Brett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Lost Generation의 사랑의 상실을 다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Brett, Robert Cohn 그리고 Jake는 스페인에서의 투우에 대한 경험과 Romero를 만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잃었던 자아를 회복하고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바라보게 된 것이다. 오히려 이는 사랑의 상실이 아니고 사랑의 재생을 예시해 주는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II. Lost Generation과 사랑의 의미	4
III. 사랑의 유형	10
1. 퇴폐적 사랑 : Brett Ashley	10
2. 낭만적 사랑 : Robert Cohn	18
3. 절망적 사랑 : Jake Barnes	29
4. 규범적 사랑 : Pedro Romero	39
IV. 사랑과 자아인식	46
V. 결 론	52
참고문헌	55
<Abstract>	57



I. 서 론

Ernest Hemingway의 반자서전적 소설인 *The Sun Also Rises*는 1924-25년에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작가 자신이 직접 겪은 모험을 토대로 쓰여진 것으로서,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은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상실한 채 방황하는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이전 작품들을 통해서 이미 인정을 받기 시작했지만 Hemingway에게 국제적인 명성과 Lost Generation의 기수라는 명예를 안겨다 준 첫 작품이 바로 *The Sun Also Rises*이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인물들로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고 오직 현재와 “나”만을 위한 생활을 영위한다. 전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육체적으로 초조해진 인간들로 먹고 마시는 것과 찰나적인 성적 충동에만 몰두하여 생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방황한다. 그리고 Lost Generation의 인물들이 도피처로 선택한 프랑스의 파리와 스페인의 팜프로나를 무대로 여러 사건이 전개되는 *The Sun Also Rises*는 Lost Generation이 연상시키는 사회적 고립감, 도덕적 부패, 신념과 가치의 상실 등 당시대 젊은이들의 지배적 의식 세계와 행동 양식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다른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1920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근대 소설(modernist novel)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이 발표되지 않았다. 영국에서도 전쟁 전후를 통해서 Joseph Conrad, D. H. Lawrence, Virginia Wolf와 같은 작가들이 모더니즘 문학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Andre Gide와 Marcel Proust가 전쟁 전후를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그러다가 1920-26년 사이에 Sinclair Lewis, Scot Fitzgerald, Ernest Hemingway가 등장하면서 진정한 근대 미국 소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26년 Hemingway의 *The Sun Also Rises*는 자유분방한 대화체의 사용과 간결하고 함축적인 새로운 유형의 문체인 “hard-boiled style”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모더니즘 미국 소설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Hemingway는 1923년 그의 처녀 출판작 *Three Stories and Ten Poems*로부터 1952년 *The Old Man and the Sea*에 이르기까지 근 30년 동안 많은 작품을 썼다. 그의 작품 주제는 죽음, 사랑, 전쟁, 폭력, 사냥, 투우 등 광범위하나 그 중에서도 남녀간의 애정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Hemingway의 주요 작품들이 그리하듯이 *The Sun Also Rises*에서도 남녀간 사랑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Hemingway의 작품에 등장하는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 연구 분석하고 있다. 이는 사랑에 대한 문제가 그의 작품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속의 사랑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작품의 핵심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의 문학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쟁이라는 허무적 배경과 문체의 간결성 등은 모두 사랑에 대한 주제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문제는 Hemingway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서, 주요 장편소설인 *A Farewell to Arms*나 *For Whom the Bell Tolls*, 그리고 *The Old Man and the Sea*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 외의 Hemingway의 많은 단편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Hemingway가 주로 다루었던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는데 혹자는 *The Sun Also Rises*에 나오는 국외도피자들의 사랑을 퇴폐적이고 허무적이며 불모적이고 삶의 기준조차 찾아 볼 수 없는 냉소적인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은 등장 인물들의 사랑의 방식이 매우 아이러니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상의 구축이라는 측면보다는 낭만적인 환상의 파괴라든가 주인공들의 퇴폐적인 부분들이 먼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 *The Sun Also Rises*를 두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불모적이며 그 결과 이 작품은 Lost Generation의 사랑의 상실을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Malcom Cowley는 *The Sun Also Rises*를 “비평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절망적이며, 때로는 즐겁고, 따뜻하며, 심지어 화려하기까지 한 작품”¹⁾이라고 평하며 이 소설이 지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1) Malcom Cowley, ed., *The Portable Hemingway* (New York: The Viking Press, 1944), p. 21.

*The Sun Also Rises*에 나오는 국외도피자들의 사랑을 잃어 버린 정체성과 상실감, 허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The Sun Also Rises*를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비평가들의 견해에 기초하여 이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사랑의 측면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자아 인식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he Sun Also Rises*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Lost Generation과 사랑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본론에서는 주인공들의 사랑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먼저 남자 주인공들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주인공 Brett가 다양한 사랑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자아를 회복하는지를 살펴보고, 여주인공 Brett를 두고 Robert Cohn, Jake, Romero가 벌이는 사랑을 비교·고찰함으로써 그 유형을 도출하고, 과연 그들의 사랑을 자기 발견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Lost Generation과 사랑의 의미

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인류의 가치관은 대개 기독교적인 전통과 근대의 과학 기술 혁명에 근거를 두어 왔다. 변화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의 과학 기술의 경이적 진보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갈등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발전은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또 하나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전쟁의 실상은 바로 살육과 공포,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많은 기존의 문화 자체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전쟁을 두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가치 하에 낭만적이고도 영웅적인 명분과 함께 직접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제 1차 세계 대전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타격을 주었다. 그들이 목격한 전쟁이라는 것은 이들이 생각했던 바와는 달리 막대한 피해와 파괴 앞에서 본래의 낭만적 이상을 찾지 못하고 오직 실패와 좌절이라는 쓰라린 경험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특히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 이후 미국은 경제 번영과 더불어 저속한 물질주의와 배금주의의 풍조가 도처에 팽배하게 되었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정신적 빈곤과 무절제의 현상이 초래되었다. 기존의 이상과 가치, 도덕과 신앙들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모두 허물어져 버렸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이상과 영웅적 행위에 대해 사람들의 환영과 관심을 받기도 했으나 이는 순간적이었으며 오히려 외면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 결과 이들은 현실에 분개를 하면서 소외감과 상실감으로 고국을 등지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들이 바로 1차 대전의 승리로 엄청난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상업주의와 속물주의에 적응할 수 없어 심한 반발감과 소외감 속에서 고국의 현실을 떠나 유럽으로, 특히 *The Sun Also Rises*의 배경인 프랑스 파리로 모여든 국외도피자들(expatriates)이었다. 이들 중 Fitzgerald, Hemingway, William Faulkner, Dos Passos 등은 전쟁에 이상을 두고 참여했던

자신들의 정열을 문학적 열정으로 표현하면서 작품을 통하여 미국적 이상에 대한 환멸을 실토하고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했다.

1921년 Harold Sterns는 “미합중국의 문명”(Civ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을 편집하면서 미국에는 문명이 없다고 파리로 떠나는 상징적인 행위를 단행하였다. 미국 사회에서 좋은 작품을 쓴다는 것이 불가능하여 창의적 생활이 가능한 유럽으로의 도피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Sterns가 미국을 떠나 유럽에서 “미합중국의 문명”을 편집하였다는 사실²⁾은 유럽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미국인으로서 자기 속에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미국이 배출한 작가들 중에는 Henry James나 T. S. Eliot처럼 미국에서 태어나 유럽으로 귀화한 작가들이 있고, Hawthorne이나 Melvill처럼 비유적으로 이국에 망명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Hemingway를 비롯한 작가들은 인생 경험에 대한 미국의 의식을 발견하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시대에 Hemingway는 국외도피자들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있었으며 그의 윤리관은 신념을 잃은 시대의 지표였다고도 보여진다.

파리에서 문학 잡지를 발간하는 등, 작품 활동을 벌인 이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곳이 Gertrude Stein 여사의 살롱이었는데, 거기서 Stein여사는 이들, 특히 Hemingway에게 “당신들 모두는 상실된 세대요(lost generation).”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을 Hemingway가 *The Sun Also Rises*의 서문에 인용함으로써 이후 ‘Lost Generation’은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Lost Generation에 속하는 젊은이들이 가지는 특징은 종교와 역사, 문화와 사회, 그리고 전통에 수반되는 모든 가치에 대한 신념의 완전한 상실이며, 인간의 온갖 당위에 대한 도전이며, 이상주의에 대한 부르짖음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가슴 속 깊이 간직되어 있는 것은 인간 능력의 부정과 질서의 파괴와 불신 그리고 환멸과 허무주의뿐이었다. 이는 또한 적극적인 활동이나 순간적인 쾌락 속에 몸을 맡기는 태도를 빚어낸다.

2) John W. Aldridge, *After the Lost Generation* (New York: McGraw-Hill, 1951), pp. 11-12.

그리고 이들 Lost Generation에 속하는 젊은이들의 절망이 얼마나 처참한 것이었으며, 그 행위가 얼마나 불모하였고,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였는가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제 1기수인 Fitzgerald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Fitzgerald said that by this time it was in 1927 contemporaries of mine had begun to disappear into the dark now of violence. A classmate killed his wife and himself on Long Island, another tumbled "accidentally" from a skyscraper in Philadelphia, another purposely from a skyscraper in New York. One was killed in a speakeasy in Chicago, another was beaten to death in a speakeasy in New York and crawled home to the Princeton club to die; still another had his skull crushed by a maniac in an insane asylum where he was confined. These are not catastrophes that I went out of my friends; moreover, these things happened not during the depression but during the boom³⁾

이들 국외도피자들의 절망적 생활 속에서의 불신과 환멸을 통한 예술적 추구는 훨씬 더 정열적인 양상을 띤다. 비록 좌표를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었지만 자아의 추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기존의 가치와 이상, 신앙에 대해 허무주의적 입장에서 통렬한 비판을 가했으며 이와 함께 당시에 만연되었던 상업주의와 속물주의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독특한 경험과 내면의 잃어버린 자신들을 대변하는 환멸감이나 허무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문학적인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Hemingway를 비롯한 파리의 젊고 냉소적인 문학 청년들은 Stein 여사와 교제하면서 언어 표현에 있어서 그녀의 영향을 받는다. 즉 "hard-boiled" 라는 말을 짧고 간략하게 사용하며 동일한 어구들을 사용하는 교묘한 수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Hemingway의 경우 초기부터 "hard-boiled"라는 독특한 스타일로 자신의 전쟁 경험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사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배제하고 구어체

3) Malcom Cowley, *Exiles Return* (New York: Viking Press, 1951), p. 244.

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어휘는 대개 단음절로서 20자 이내의 단문을 구사하며 복문을 피하고 'and'와 같은 접속사를 반복하는 간결한 문장을 이용하여 창작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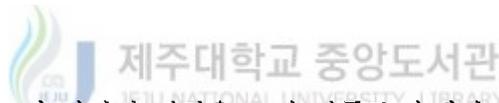
이러한 Lost Generation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는 F. Scott Fitzgerald와 William Faulkner, Hemingway를 들 수 있다. 소위 재즈 시대라고 부르는 반항적 전후 세대의 대변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Fitzgerald인 경우 물질적으로 번영하였으나 정신적으로 시들어 가거나 파괴되어 가는 인물들을 파헤친 비극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는 또한 청춘과 미의 낭만주의와 소멸과 몰락의 비관주의를 극명히 드러내는 작가이기도 하다. Lost Generation의 세계를 다룬 그의 처녀작 *This Side of Paradise*는 전쟁의 충격으로 아직도 혼란과 동요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전후에 기존의 도덕과 질서에 반발하는 모습을 다소 퇴폐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의 출세작 *The Great Gatsby*에서도 전후 젊은이들의 퇴폐적인 생활과 그들의 비극적 종말을 그려내고 있다.

Hemingway와 더불어 20세기 미국 문학의 두 거봉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 문학을 명실 공히 세계 문학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린 작가인 William Faulkner는 그의 작품 전체에서 본질적으로 비극적 비전을 제시하며 운명에 좌우되는 인물 설정을 그린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The Sound And The Fury*에서는 한 귀족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미국 남부의 도덕적 몰락과 더 나아가서는 현대인의 정신적 붕괴를 그리고 있다.

F. Scott Fitzgerald나 William Faulkner는 현대 사회의 붕괴와 현대인의 도덕적 타락, 정신적 불모 현상, 그리고 상실감을 자신이 선택한 주인공들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들은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극적인 모습들이다. Hemingway 역시 Lost Generation의 기수로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과 죽음의 존엄성마저도 파괴시키는 것을 보고 대다수의 주인공들을 그러한 정신적·육체적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로 그린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The Sun Also Rises*의 주인공 Jake Barnes는 전쟁으로 인해 성불구자가 되어 허무주의와 향락 속에서 방황하며, *In*

*Our Time*에서 Nick Adams는 성인세계의 폭력과 상처와 죽음을 목격하며 '순수 (innocence)'에서 '경험(experience)'으로의 입문 과정을 허무 의식 속에서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의 Hemingway는 좀더 긍정적이 되었고 인간의 의지와 신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For Whom The Bell Tolls*에서는 자신의 신념과 이념을 위해 전쟁에 뛰어들어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인물 Robert Jordan을 창조해 냈으며 *The Old Man And The Sea*에서는 불굴의 투지를 가진 노인을 통해 인간은 파멸될 수는 있지만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희망을 제시하였다. 결국 동시대 작가들의 주인공들이 패배하고 마는 비극적인 인물들인데 반해 Hemingway의 주인공들은 허무주의를 넘어 극기주의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Hemingway 자신은 1951년 Carlos Baker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Lost Generation'에 속함을 부정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I thought beat-up, may be, in many ways . Lost, no We were a very solid generation through without education (some of us). But you could always get it.⁴⁾



이런 Hemingway의 사상의 변천은 그의 작품들 속에서 다뤄지는 사랑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Up in Michigan*의 동물적 사랑, *The Sun Also Rises*의 주인공 Brett의 퇴폐적인 사랑과 Jake의 절망적 사랑, *A Farewell to Arms*의 Frederic Henry에 대한 Catherine Barkley의 순종적 사랑, *For Whom the Bell Tolls*의 Robert Jordan에 대한 Maria의 헌신적 사랑, *The Old Man and The Sea*의 우애적, 범애적 사랑에 이르기까지 주제는 사랑이지만 각각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작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사랑의 형태나 질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Hemingway의 작품 세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의 사회에 등을 돌리고 방황하

4) Carlos Baker, "Wastelanders," in *Hemingway: The Writer as Artis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2), p. 75.

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후기의 긍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랑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쳤다. 초기의 관능적이고 퇴폐적인 사랑에서, 중기의 순종적이며 복종적인 사랑, 그리고 말기에는 인간의 숭고한 정신인 헌신적인 자세에서 유래되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한 인류애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Hemingway를 비롯한 Lost Generation 작가들은 기존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 무가치론을 내세우면서 허무주의와 비판으로 일관함으로써 문학적 진보를 더디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동안 문학 속에서 인식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작가들이며 ‘인간이란 결국 죽는 존재’라는 절박한 인식은 곧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했다는 점에서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은 죽음과 허무라는 처절한 절망감 속에서 희망을 갈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노력이 새로운 삶의 인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을 통해 유입된 유럽의 문체와 표현 스타일은 미국 문학을 유럽 문학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Ⅲ. 사랑의 유형

1. 퇴폐적 사랑 : Brett Ashley

1920년대의 Hemingway의 사상은 허무주의로써, 전쟁(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청년들이 정신적 안식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불모와 환상과 술의 세계가 작품의 배경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 바로 *The Sun Also Rises*이며 이 작품 속의 주인공 Brett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방황하는 불모의 시대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국 여인 Brett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남성들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후 세계를 특징짓는 왜곡된 성적 역할 때문일 것이다.

Brett was dammed good-looking. She wore a slipover jersey sweater and a tweed skirt, and her hair was brushed back like a boy's. She started all that. She was built with curves like the hull of a racing yacht, and you missed none of it with that wool jersey⁵⁾

소년 같은 짧은 머리로 상징되는 그녀의 남성성, 즉 그녀의 여성스러움의 상실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Brett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이러한 상실된 여성성 때문에 Brett는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Brett는 정신적인 지주가 없는, 천박한 세상에 충격을 받고 가슴에 상처를 안은 채 병들고 방황하는 음탕한 모습의 여인으로서, 그녀에게서는 여성다움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이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남성적인 성격, 소년처럼 짧

5) Ernest Hemingway, *The Sun Also Ris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4), p. 22. 이후부터 본문의 인용은 쪽수만 밝히겠음.

6) 김병철, 『헤밍웨이 문학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2), p. 385.

은 머리, 항상 쓰고 다니는 남성용 중절모로 묘사되는 그녀의 모습이 상징하는 상실된 여성성을 두고 심신 양면에 전쟁의 상처를 안은 채 고민하는 전후 세대를 대변하는 여인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Brett herself provides a key to the dizzy sexual medley With a man's felt hat on her boyish bob, and with her familiar reference to men as fellow 'chap', she completes the distortion of sexual roles which seems to characterize the period For the war, which has unmanned Barnes and his contemporaries, has turned Brett into the free wheeling equal of any man.⁷⁾

결국 Brett의 남성성은 사회가 가져다준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다. Jake가 전쟁에서 성불구의 모습이 된 것처럼 Brett의 모습은 전후 세대의 정신적 불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사실, 그녀는 첫 남편을 매우 사랑했으나 전쟁에서 이질로 잃고 만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영국 해군 장교로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후부터는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침대에서 잠자지 못하고 마루바닥에서 자며, Brett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끝내는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밤에는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침대 밑에 두고 자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그 탄알을 제거해야만 했다. 이러한 남자와 헤어질 것을 결심한 Brett는 파리로 건너와 역시 전쟁의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파산 당해 술로 현실을 잊고 사는 성격 파탄자 Mike와 약혼 상태이다. 또한 정신적 지주인 Jake와의 관계도 전쟁으로 인한 그의 상처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렇듯 그녀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속에서 살아남은 대신에 개인적으로는 혼란에 빠지고 세상에 대하여 불신과 환멸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채 난잡한 섹스 속에 노출되어 이 술집, 저 술집으로 새로운 남자를 찾아 헤매는 등, 도덕적, 감성적으로 공허하고 방탕하며 퇴폐적인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러한 사실은 Jake가 창녀 Georgette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여자를 찾아 술집에 들어온 젊은

7) Mark Spilka, "The Death of Love in *The Sun Also Rises*," in *Ernest Hemingway: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ed. Carlos Bak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2), p 20

남자들의 무리 속에 섞여 있는 Brett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Two taxis were coming down the steep street. They both stopped in front of the Bal. A crowd of young men, some in jerseys and some in their shirt sleeves, got out. I could see their hands and newly washed, wavy hair in the light from the door. The policeman standing by the door looked at me and smiled. They came in. As they went in, under the light I saw white hands, wavy hair, white faces, grimacing, gesturing, talking. With them was Brett. She looked very lovely and she was very much with them.

One of them saw Georgette and said "I do declare. There is an actual harlot. I'm going to dance with her, Lett. You watch me."

The tall dark one, called Lett, said. "Don't you be rash."

The wavy blond one answered "Don't you worry, dear." And with them was Brett. (p. 20)

이러한 행동은 그녀를 사랑하는 Jake를 화나게 한다.

I was very angry. Somehow they always made me angry. I know they are supposed to be amusing, and you should be tolerant, but I wanted to swing on one, any one, anything to shatter that superior, simpering composure. (p. 20)

Brett와 Jake는 서로 진실한 사랑을 느끼고, 또한 서로를 원한다. 그러나 Jake의 성불구 때문에 정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한다. Brett는 이런 자신을 두고 "오, 사랑하는 당신. 너무 괴로웠어요." (p. 24) 라고 Jake에게 한탄한다. 그들의 사랑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아마도 Brett가 퇴폐적이며 난잡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Jake와 정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에게서 채울 수 없는 육체적 욕망을 다른 여러 남자들과의 성관계로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Jake가 한밤중에 찾아온 Brett의 목소리를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잠깐 동안이기는 했지만 잠깐 만나 얘기를 나눈 창녀 Georgette와 혼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Jake가 Brett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

는 여자를 창녀와 착각함으로써 심지어 그의 의식 속에도 퇴폐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Brett의 모습이 잠재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The concierge was talking down-stairs She was very angry. I heard my name and called down the stairs.

"Is that you, Monsieur Barnes?" the concierge called

"Yes. It's me."

"There's a species of woman here who's waked the whole street up What kind of a dirty business at this time of night! She says she must see you. I've told her you're asleep"

Then I heard Brett's voice. Half asleep I had been sure it was Georgette. I don't know why She could not have known my address. (p. 32)

또한 Brett는 자신의 사랑 놀음을 Jake에게 자세히 말함으로써 그에게 상처를 준다. 늙은 백작과의 사랑 놀음도 그렇고, 특히 사랑하지도 않는 Robert Cohn과의 유희를 Jake에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를 거북하게 만든다.

Brett의 이교도적인 면 또한 그녀의 타락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We started inside and there was a smell of incense and people filing back into the church, Brett was stopped just inside the door because she had no hat, so we went out again and along the street that ran back from the chapel into town (p 155)

성당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되는 이 장면과, 축제 마지막 날 Romero의 행운을 빌기 위해서 들어간 San Fermin 교회당에서의 장면은 그녀의 무종교성을 잘 보여준다.

We knelt at one of the long wooden benches. After a little I felt Brett stiffen beside me, and saw she was looking straight ahead.

"Come on," she whispered throatily. "Let's get out of here. Makes me

damned nervous "

Outside in the hot brightness of the street Brett looked up at the tree-tops in the wind The praying had not been much of a success.

"Don't know why I get so nervy in church," Brett said "Never does me any good."

We walked along

"I'm damned bad for a religious atmosphere," Brett said. "I've the wrong type of the face." (p. 208)

성당에 들어갔지만 그 분위기에 억압되어 곧 나와버리는 Brett의 이런 모습을 두고 많은 비평가들이 Brett를 타락한 요부라고까지 비난한다.

또한 Brett는 Jake에게 19세의 젊은 투우사 Romero에게 열렬한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그를 찾아달라고 간청한다. Jake를 사랑하며 그러니 곁에서 지켜 봐달라고는 하면서 Romero라는 다른 남자를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은 Brett가 Jake를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찾아달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Robert Cohn도 얘기했지만 Brett를 요부(circe)라고 말할 수 있는 타당성을 제공해주는 듯하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표면상의 이유들로 인해서 Brett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여성다움을 잃어버렸으며, 그래서 Jake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원인을 그녀의 탓만으로 돌려버리기 쉽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녀가 관계를 가졌던 남자들은 Romero를 제외하고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 대전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Brett의 전남편 Ashley경이 그랬고, 현재 약혼 중인 Mike도 마찬가지고, Robert Cohn도 그렇고, 가장 비극적이긴 하지만 Jake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간에 대해서 Backman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Friendship or not, there is no denying the essential futility of their lives. It

was life without purpose or direction, without intensity or passion, without faith in themselves or their world Nor did they seem truly to believe in the hedonism by which they lived It seemed that at the bottom of their hearts there lay such a cold dead despair that they drank in order not to think of it , they drank to wind themselves up, like a clock that must be wound every twenty-four hours So they got through their days. 8)

Backman의 지적처럼 삶의 목표도 없고, 지표도 없고, 정열도 없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도 없는,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부분들을 잊기 위한 반복되는 음주행위에 빠져있는 이들에 대해 James T. Farrel도 “체대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고 그런 사실을 깨달을 자아 의식도 결여된, 말하자면 성숙하고자 하는 욕망마저 저버린 사람들”9)과 같다고 말한다.

이렇듯 전쟁으로 인한 상실의 상처가 생활 속 깊이 파고들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남성들과 Brett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정상적일 수 없다. 따라서 실패한 사랑의 원인을 전적으로 Brett의 타락성과 퇴폐성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사랑의 실패가 Brett 때문만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녀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Brett와 그녀의 사랑이 퇴폐적이라는 부정적 평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만약 Brett가 Jake에게 갖고 있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면, 말초 신경적 본능만을 즐기는 그녀가 그를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Brett의 관능만을 추구하는 난잡한 성관계가 Jake로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며 수치심을 느끼면서까지 투우사 Romero를 소개시켜 주는 투쟁이 역할을 할 정도였지만 이는 Brett의 행동과 사랑이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Melvin Backman, "The Matador and the Crucified," in *Hemingway and His Critics*, ed Carlos Baker (Modern Fiction Studies, 1955), p. 242

9) James T. Farrel, "The Sun Also Rises," in *Ernest Hemingway: The Man and His Works*, ed. John K. M McCaffery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56), p. 222.

또 다른 이유는 Brett가 Romero를 만나면서 상실한 여성성을 회복함으로써 구원 받을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Brett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Romero가 여성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듣고 그녀의 자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It was a rather a knock his being ashamed of me He was ashamed of me for a while, you know "

"No."

"Oh, yes They ragged him about me at the cafe, I guess. He wanted me to grow my hair out. Me, with long hair I'd look so like hell "

"It's funny."

"He said it would make me more womanly. I'd look a fright " (p. 242)

이렇게 참다운 여성성을 상징하는 긴 머리에 대한 언급은 Brett로 하여금 자아를 인식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즉 그녀는 앞날이 유망한 젊은 투우사의 순진한 사랑을 받아들이기엔 자신이 너무 깊고 퇴폐적인 허무의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결혼 할 수 없으며,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Romero의 곁을 떠나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자기 나름의 삶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무질서한 과거를 청산하고 있었던 자신을 되찾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여자로의 복귀를 선언하게 된다.

"I'm thirty-four, you know. I'm not going to be one of these bitches that ruins children."

"No."

"I'm not going to be that way. I feel rather good, you know. I feel rather set up."

. . . .

"I'm going back to Mike." I could feel her crying as I held her close.

. . . .

I won't be one of those bitches," she said. "But, oh, Jake, please let's never talk about it." (p. 243)

많은 비평가들이 Brett를 두고 퇴폐적이고 허무한, 그리고 완전히 삶의 의미를 상실한 듯한 알콜 중독자이자 성적 탐닉자(sexual mania)라고 말한다. 또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주는 악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평가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으며, 사랑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만 지나치게 충실하여 서로간의 사랑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여성이며 또한 도덕이나 윤리, 인습, 종교와는 거리가 먼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Brett는 성적인 요소가 배제된 불완전한 사랑의 갈등 때문에 운명적으로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불행한 여주인공이며,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면서도 Jake를 끝까지 정신적인 지주로 여기는 주관이 뚜렷한 여성이다. 또한 Romero의 장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Romero와의 사랑을 분연히 단절시켜 버리는 그녀의 회생적인 결단 등은 그녀가 창녀나 요부가 아님은 물론 악녀도 아님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그녀에게도 해야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에 대한 일종의 행동 규범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면이 그녀를 타락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낭만적 사랑 : Robert Cohn

Hemingway의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는 위선적이고 성실하지 못한 인물들과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인물들을 Hemingway는 ‘엥터리’ (phony) 또는 ‘이탈자’ (outsider)라고 부른다. ‘엥터리’는 그릇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거짓된 인간이다. 거짓된 인간은 그가 접촉하는 순진한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을 쉽게 망칠 수 있기 때문에 Hemingway의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어긋난다. 그래서 Hemingway의 주인공은 ‘엥터리’와의 관계를 단절할 필요성을 느낀다.

*The Sun Also Rises*에서 Robert Cohn과 Mike와 같은 인물들은 인생의 본질과 진실에서 끊임없이 도피하려고 시도하므로 이탈자에 속하는 인간이다. 특히 Robert Cohn은 이탈자의 대표적 인물로 언제나 환상 속에 산다. 이탈자는 환상이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습에 기초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탈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범이 없다. 아마 이런 점이 주인공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경멸과 모욕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The Sun Also Rises*의 낭만적 사랑은 유대계 작가 Robert Cohn의 Brett에 대한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비정상적인 낭만적 기질 때문에 그가 하는 사랑조차도 진부한 낭만주의로 특징지어져 버린다. 그리고 그의 Brett에 대한 사랑은 맹목적인 성격을 띄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그의 낭만적 기질에 바탕을 둔 애정관 때문일 것이다. Robert Cohn의 이런 낭만적 태도는 Jake의 다음과 같은 평가에 잘 나타난다.

I am sure he had never been in love in his life.

He had married on the rebound from the rotten time he had in college, and Frances took him on the rebound from his discovery that he had not been every thing to his first wife. He was not in love yet but he realized he was an attractive quality to women, and that the fact of a woman caring for him

and wanting to live with him was not simply a divine miracle. This changed him so that he was not so pleasant to have around. (p. 8-9)

Robert Cohn은 Jake의 생각처럼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지도 모른다. 그는 대학 때 자아 존중감(self-esteem)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권투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즉 유대인 취급을 받게 되는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씻으려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권투를 배웠던 것이다. 열등감의 자의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과정과 연습하던 중 코가 납작해져버리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대학을 나온 뒤에는 자신에게 잘해준 최초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 Robert Cohn이 사랑을 찾던 중에 자신을 좋아하는 여자에게서 그 사랑을 발견한 것이었다.

Robert Cohn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거의 모든 등장 인물들이 자아의 문제로 고민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He cared nothing for boxing, in fact he disliked it, but he learned it painfully and thoroughly to counteract the feeling of inferiority and shyness he felt on being treated as a Jew at Princeton. There was a certain inner comfort in knowing he could knock down anybody who was snooty to him. . (p. 3)

Robert Cohn은 자신이 원하던 것, 즉 수용(acceptance)과 사랑(love)을 얻기 위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감수했던 것이다. 그는 크게 드러나는 외적표시나 근거에서 내부적인 힘을 찾는 그런 낭만주의자인지도 모른다. 그의 낭만적인 경향은 대부분의 낭만주의자들이 그러하듯 오래된 연륜과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우연히 읽게 된 W. H. Hudson의 *The Purple Land* 에서 비롯된 것이다.

He had been reading W. H Hudson. That sounds like an innocent occupation, but Cohn had read and reread "The Purple Land". "The Purple Land" is a very sinister book if read too late in life. It recounts splendid imaginary

amorous adventures of a perfect English gentleman in an intensely romantic land, the scenery of which is very well described. For a man to take it at thirty-four as a guide book to what life holds is about as safe as it would be for a man of the same age to enter Wall Street direct from a French convent, equipped with a complete set of the more practical Alger books. Cohn, I believe, took every word of "The Purple Land" as literally as though it had been an R. G. Dun report. You understand me, he made some reservations, but on the whole the book to him was sound. (p. 9)

Robert Cohn이 읽은 낭만적인 책이 바로 그의 생활규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현실을 돌보지 않고 무시하며 남이 비웃는다고 해서 쉽사리 그의 이상을 굽히지도 않으며 때로는 먼 외국에서 로맨스를 찾으려 하는 감상적 이기주의자로서 스스로의 모습을 자리 매김 하려한다. 어느 날 Jake에게 와서 남미로 가자고 제안하는 Robert Cohn의 모습은 마치 돈키호테를 연상시킨다.

"Would you like to go to South America, J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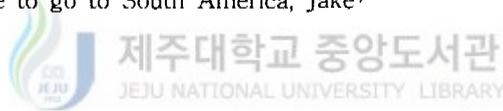
"No"

"Why not?"

"I don't know I never wanted to go Too expensive You can see all the South Americans you want in Paris anyway."

"They are not the real South Americans."

"They look awfully real to me" (p 9)



남미에 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Jake의 끊임없는 물음에 Robert Cohn은 뚜렷한 이유를 대지도 못하며 Jake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마냥 우기는 격이다. 그도 그럴 것이 Robert Cohn은 그의 경험 철학의 교훈을 따라 사물과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다 알게된 책의 영향을 받는 터이라 그의 행동은 논리적인 이유가 아닌 즉흥적 감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험 철학의 교훈을 따라서 사물과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가

치관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싸워 나갈 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며, 무엇보다도 일체의 외적 가치 기준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세상을 살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사물과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는 현실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간다. 준수해야 할 법칙이 있는 것이다. 이 법칙의 구체적 표시가 바로 행동규범으로서 품위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Robert Cohn은 이런 행동규범과 품위가 없어서 비판받는 대표적 인물이다. Philip Young은 이런 행동규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Though it is highly developed yet, he and those few he represents have a code, too Jake complains very little, although he suffers a great deal;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are "done" and many that are "not done". Lady Brett Ashley also knows the code, and distinguishes people according to it; a person is "one of us", as she puts it, or is not and most are not The whole trouble with Robert Cohn, the boxing, maladroit Jew of the novel, is that he is not¹⁰⁾

Robert Cohn은 매사에 눈치가 없고 요령이 없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추잡함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행동규범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진부하고 완고한 낭만적 기사라는 증오와 모욕과 멸시를 받기 마련이다. Frances가 Robert Cohn이 결혼할 의향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녀에게서 달아나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 대해 Jake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데서 Robert Cohn의 애정관은 확실히 드러난다.

why, you see, Robert's always wanted to have a mistress, and if he doesn't

10) Philip Young, *Ernest Hemingway*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66), p. 80.

marry me, why, then he's had one She was his mistress for over two years. See how it is? And if he marries me, like he's always promised he would, that would be the end of all the romance (p 51)

이토록 진지한 사랑의 법칙을 모르고 일시적이고 낭만적인 즐거움의 수단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Robert Cohn에게도 사랑의 고통이 찾아온다. 즉 Brett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다.

She stood holding the glass and I saw Robert Cohn looking at her He looked a great deal as his compatriot must have looked when he saw the promised land. Cohn, of course, was much younger. But he had that look of eager, deserving expectation. (p 22)

이제 Robert Cohn은 Brett의 약혼자 Mike와 새 애인 Romero와 그녀의 변함없는 애인 Jake를 사랑의 경쟁자로 갖게 된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낭만적 기사가 되어 Jake에게 Brett에 대해 물어보며 그녀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What do you know about Lady Brett Ashley, Jake?"

"Her name's Lady Ashley Brett's her own name. She's a nice girl," I said.

"She's getting a divorce and she's going to marry Mike Campbell He's over in Scotland now Why?"

"She's a remarkably attractive woman."

"Isn't she?"

There's a certain quality about her, a certain fineness. She seems to be absolutely fine and straight."(p. 38)

어떤 비평가들은 이런 Robert Cohn을 두고 이 작품에서 과거에 뿌리를 둔 유일한 인간으로서, 가장 생생하고 현실적인 인물이며, 그의 낭만적인 천진함과 예민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Arthur L. Scott는 다음과 같이 Robert Cohn을 옹호한다.

Where men are concerned, as we shall see, Cohn displays admirable self-control in replying to insults with the soft word instead of the hard first. How easy it would have been to show off before his "lady" -as Romero does in the bull ring. And where women are concerned, Cohn is still more polite and considerate.¹¹⁾

단지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전쟁으로 인해 여성의 본질성을 빼앗기고 혼잡한 정사와 음주에 노출되어 낭만적 연인을 단순한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치가 두절된 Brett를 진실로 사랑했다는 사실이다. 그녀에게 있어 Robert Cohn과의 밀회는 또 한번의 재미를 본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Robert Cohn은 그런 Brett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일려고 했다는 데서 정신적 고통과 패배는 비롯된다.

Robert Cohn의 숙명은 Hemingway의 인물 중 가장 야비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Hemingway의 도덕적 규범(moral code)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락하고 방종한 Brett도 이 규범은 알고 있었고 지켰다. 그리하여 Brett마저도 그를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고 마는 것이다. 이런 이탈자(outsider)적인 Cohn의 모습은 Mike에 의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된다.

"Tell me, Robert. Why do you follow Brett around like a poor bloody steer? Don't you know you're not wanted? I know when I am not wanted. Why don't you know when you're not wanted? You came down to San Sebastian where you weren't wanted, and followed Brett around like a bloody steer. Do you think that's right?"

"Shut up. You're drunk."

"Perhaps I am drunk. Why aren't you drunk? Why don't you ever get drunk, Robert? You know you didn't have a good time at San Sebastian because none of our friends would invite you on any of the parties. You can blame them hardly. Can you? I asked them to. They wouldn't do it. You can't blame them, now. Can you? Now, answer me. Can you blame them? (p. 142)

11) Arthur L. Scott, "In Defense of Robert Cohn", *College English*, 8/6 (March, 1957), p. 310.

이 일은 Robert Cohn을 정서적으로, 불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 버리는 것이다. 또한 Mike가 Robert Cohn을 이탈리아로 단정짓는 이유 중 하나로 그의 술 취하지 않음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Mike뿐만이 아니고 Jake도 언급하는 것이다.

Mike was a bad drunk. Brett was a good drunk. Bill was a good drunk.
Cohn was never drunk (p 148)

이 음주 행위는 전쟁과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한 행위인 동시에 국외도피자들의 상실감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obert Cohn이 음주에는 참여하지만 취하지 않음은, 읽는 이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정도로, 국외도피자들의 무리 속에 포함될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그가 사실상 남들이 다 느끼는 상실감을 실제로 느끼기에는 역부족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Robert Cohn이 갖고 있는 낭만적인 이상과 사랑에 대한 환상 때문이기도 한데, 이 이상과 환상이 정신적으로 공허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너무 생소한 것이어서 Robert Cohn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짜증과 분노로, 결국에는 그를 자신들의 무리 속에 절대로 포함될 수 없는 이탈리아로 취급하기에 이른다. 그런 Robert Cohn이 Brett에 대한 사랑의 환상을 쉽게 포기할 리가 없다.

He was reserved and formal, and his face was still taut and sallow, but he cheered up finally. He could not stop looking at Brett. It seemed to make him happy. It must have been pleasant for him to see her looking so lovely, and know he had been away with her and that everyone knew it. They could not take that away from him (p 146)

어떤 의미에서 Robert Cohn의 Brett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Brett에 대한 환상이 지나쳐 오직 그녀에 대한 사랑만 생각했지 그의 감정을 사소한 일, 조그마한 이야기, 새로운 구경거리에 몰두시킬 수 없었으며, 바로 이러한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Robert Cohn은 먼 데 있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near sighted)의 소유자로 비유된다.

There, standing with the hotel runners, was Robert Cohn He did not see us at first Then he started forward

"Hello, Jake. have a good trip?"

"Fine," I said. "This is Bill Gorton"

"How are you?"

"Come on," said Robert "I've got a cab" He was a little near-sighted. I had never noticed it before He was looking at Bill, trying to making him out. He was shy, too (p. 89)

Jake가 Bill을 Robert Cohn에게 소개하는 이 장면에서 Robert Cohn을 근시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단 Robert Cohn의 신체적인 결함뿐만이 아니라 앞일을 차분하게 내다볼 줄 모르는 근시안적인 근성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Robert Cohn의 근시안적 성격은 마치 중세 기사가 자신의 연적을 때려눕히듯이 Brett의 약혼자 Mike를 때려눕힌 후 그녀의 변함없는 애인 Jake를 때려눕히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I'll make you tell me" -he stepped forward- "you damned pimp."

I swung at him and he ducked I saw his face duck sideways in the light He hit me and I sat down on the pavement As I started to get on my feet he hit me twice. I went down backward under a table I tried to get up and felt I did not have any legs I felt I must get on my feet and try and hit him. Mike helped me up. Some one poured a carafe of water on my head Mike had an arm around me, and I found I was sitting on a chair Mike was pulling at my ears (pp. 190-191)

그는 Mike를 때려눕히고, 최고의 친구 Jake를 때려눕힘으로써 자기 등지를 스스로 더럽히게 된다. 그리고 그는 다른 주인공들의 행동규범과는 상당히 다른 식으로 행동한다. 말하자면 그는 주먹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파멸시켜 버린다.

Jake와 Mike를 쓰러뜨렸을 때 Robert Cohn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Romero 방에 들어가 그와 충돌했을 때 Robert Cohn은 예기치 못한 파멸을 맞는

다. 이들 간의 대결은 서로 상반된 자들의 충돌로서 Mike Spilka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This last encounter is the high point of the parable, for in the Code Hero, the Romantic Hero has finally met his match. As the clash between show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hysical and moral victory, between chivalric stubbornness and real self-respect¹²⁾

사랑에 눈이 먼 Robert Cohn은 숙련된 권투 솜씨로 Romero를 여러 번 때려 눕혔지만 결코 그를 패배시킬 수는 없었다. Romero와의 사건은 일종의 방어 기제였던 Robert Cohn의 권투 기술이 더 이상 그를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지 못함을 보여주며,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진짜 남자다운 용기와 힘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Robert Cohn의 남자다움은 권투와 여자에 대한 사랑에 입각한 것이지 결코 내부적인 힘에 바탕을 둔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권투도 사랑도 그를 받아들여 주지 못하자 공허로 내몰리게 된다.

Robert Cohn은 거의 항상 자신의 full name인 'Robert Cohn'이나 자신의 성인 'Cohn'이라고 불리워지지 그의 first name에 의해서 불리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다른 인물들이 그들의 first name에 의해서만 불리워지는 것과 묘하게 대조를 이룬다. 물론 Spider Kelly와 Harris와 같은 예외가 있기도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란 것이 작품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으며 잠깐 등장하는 정도이다. Romero인 경우도 성이나 'Pedro Romero' 라는 full name에 의해서 불려지긴 하지만 그가 상징하는 젊음과 이상, 그의 스페인 사람 기질 때문에 Hemingway에 의해서 별도로 취급되어지며 작품 내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시의 대상일 뿐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에 Robert Cohn은 감정적으로, 고의적으로 다른 인물들과 격리되어 있다. 작품 내내 등장하는 주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늘 조롱의 대상이거나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는 이탈자로 남아있다. 아마

12) Mark Spilka, "The Death of Love in *The Sun Also Rises*," in *Hemingway*, ed. Robert P. Week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2), p. 127.

Hemingway는 ‘Robert Cohn’ , ‘Cohn’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이런 점을 강조하는 듯하다.

Robert Cohn은 이 소설에서 ‘소외’ (alienation)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팜프로나에서 축제 첫 날 밤을 보낸 Jake가 피곤해서 혼자 호텔 방으로 돌아오지만 자신의 방 열쇠를 못 찾아 Robert Cohn의 방에서 자는 장면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 날 아침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I had been sleeping heavily and I woke feeling I was too late. I put on a coat of Cohn’s and went out on the balcony. Down below the narrow street was empty. All the balconies were crowded with people. Suddenly a crowd came down the street They were all running, packed close together. They passed along and up the street toward the bull-ring and behind them came more men running faster and then some strugglers who were really running. Behind them was a little bare space, and then the bulls galloping, tossing their heads up and down. It all went out of sight around the corner. One man fell, rolled to the gutter, and lay quiet But the bulls went right on did not notice him. They were all running together. (p. 160)

이 장면은 Jake의 눈을 통한 Robert Cohn의 감정과 관찰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Jake가 해설자이긴 하지만 Hemingway는 그를 관찰자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Jake는 Robert Cohn의 옷을 입고 Robert Cohn의 발코니에서 혼자 소들과 사람들이 뒤섞여 달리는데 무리 중 한 사람이 떨어지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본다. 이것은 어쩌면 Robert Cohn이 평생 느껴온 감정인지도 모른다. 그가 사라져도 신경을 쓰거나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다.

“Where’s Cohn?”

“He’s passed out,” Brett called

“They’ve put him away somewhere.”

“Where is he?”

“I don’t know.”

"How should we know," Bill said "I think he's dead." (p. 158)

Robert Cohn은 이 작품 속에서 가장 난해한 인물들 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 실제 그는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 이해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부적절한 존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Robert Cohn은 분명 사랑은 전쟁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환멸에 찬 그런 무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Robert Cohn은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런지 모르나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Jake, Mike, Bill, Brett와 같은 사람들로 부터 소외되었다는 생각은 안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고수했던 이상과 환상은 이상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을 구역질나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그 결과 Robert Cohn이 그 무리들 속에 속하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의 낭만적 환상과 참된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3. 절망적 사랑 : Jake Barns

*The Sun Also Rises*에는 다양한 군상의 모습이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Lost Generation' 가운데 굳건한 가치관을 지켜 더 나은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꾀하는 자도 있다. Spilka는 *The Sun Also Rises*의 주요 인물에 관한 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Jake Barns and Brett Ahley are two lovers desexed by the war : Robert Cohn is the false knight who challenges their despair ' While Romero, the stalwart bull fighter, personifies the good life which will survive their failure.¹³⁾

Hemingway를 연상시키는 Jake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끊임없이 삶의 방식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 노력하면서 자기 성숙을 꾀하는 자이며 Spilka의 지적처럼 전쟁에 의한 상처로 남성성을 상실한 20대 중반의 미국인으로서 신문 일을 하는 언론인이다. 그의 현실에 대한 환멸과 무감각은 그 당시 미국을 떠나 유럽에 살고 있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공유하던 느낌이었다. 이 작품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는 파리에서의 Jake의 생활은 카페를 돌아다니며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거나 친구들의 여자 관계를 지켜보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Jake를 두고 그의 친구인 Bill은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You are an expatriate. You've lost touch with the soil You get precious Fake European standards have ruined you. You drink yourself to death. You become obsessed by sex. You spend all your time talking, not working. You are an expatriate, see? You hang around cafes." (p. 115)

Bill이 Jake에게 하는 이 말은 Hemingway 자신이 Bill의 입을 빌어 당시의 파리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Lost Generation', 즉 국외 도피자들이 그들의 조국과 결별

13) *Ibid*, p. 127.

한 채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Jake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마 그의 상처일 것이다. 그 상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전쟁에 참전했다가 얻은 Jake의 상처는 사랑하는 여인 Brett와의 육체적인 결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Jake는 Brett를 사랑하고 Brett 역시 Jake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은 Jake의 상처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 한 두 번 시도는 해보지만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Jake도 Brett도 좌절한다. 남성성을 상실한 Jake와 여성성을 상실한 Brett의 사랑은 어찌면 예고된 비극이었을 것이다. 그의 이런 아픔은 그 시대 보편적인 정신적 불모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 당시 일반 지식인들의 시대적 고민과 비극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시대의 전반적인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¹⁴⁾ Philip Young도 “모든 상실의 세대가 상처를 받았다.”¹⁵⁾ 라고 표현하여 Brett의 정신적인 상처와 마찬가지로 Jake의 육체적인 상처에 대한 고통 역시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 아픔이자 고통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Jake와 Brett가 만족스런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는 비극에 대하여 Klaus Mann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the man who narrates the story loves the woman called Brett. Because of a wound the man is impotent. Brett loves him, but she cannot be his . . . Behind the bits of conversation casually tossed away, lies the grief of a hopeless love. This grief is the secret of the novel *The Sun Also Rises*.¹⁶⁾

Brett를 그리워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Jake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아픔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14) 김 병 익, “변모의 형상. Hemingway 사상의 변모과정과 그 요인,” 「Ahemeum」, 제 2집 (1961, 2), p. 10

15) Young, p. 31.

16) Klaus Mann, “Rev. of A Farewell to Arms,” *New Swiss Review*, 24.

I blew out the lamp. Perhaps I would be able to sleep. My head started to work. The old grievance. Well, it was a rotten way to be wounded and flying on a joke front like the Italian.

I lay awake thinking and my mind jumping around. Then I couldn't keep away from it, and I started to think about Brett and all the rest of it went away. I was thinking about Brett and my mind stopped jumping around and started to go in sort of smooth waves. Then all of a sudden I started to cry. Then after a while it was better and I lay in bed and listened to the heavy trams go by and way down the street, and then I went to sleep. (pp 30-31)

이처럼 불을 끄면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공포의 환각이 머릿속에 되살아나 견딜 수 없으며 사랑하는 Brett에게 성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해 그녀를 안타까움 속에 울게 하는 사나이가 바로 Jake이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Brett도 불쌍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밤늦게 찾아와도 그냥 보내야만 하는 Jake의 마음도 한없이 아프기만 하다. 하지만 Jake는 자신의 감정을 여러 사람 앞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의 이런 절제된 감정 표현은 객관적인 행동 속에 등장 인물의 복잡한 감정을 응결시키는 Hemingway의 'hard boiled style'과도 통하며, Hemingway는 이런 문체를 이용해서 Jake의 감정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

We kissed again on the stairs and as I called for the cordon the concierge muttered something behind her door. I went back upstairs and from the open window watched Brett walking up the street to the big limousine drawn up to the curb under the arc-light. She got in and it started off. I turned around. On the table was an empty glass and a glass half-full of brandy and soda. I took them both out to the kitchen and poured the half-full glass down the sink. I turned off the gas in the dining room, kicked off my slippers sitting on the bed, and got into bed. This was Brett, that I had felt like crying about. Then I thought of her walking up the street and stepping into the car, as I had last seen her, and of course in a little while I felt like

hell again It is awfully easy to be hard-boiled about everything in the daytime, but at night it is another thing. (p 34)

Brett를 돌려보내고 침대 속으로 들어갈 때의 Jake의 마음은 공허와 외로움 뿐이다. 비록 몸은 불구이지만 그녀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처 입은 Jake는 어둠이 두렵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어둠의 순간이 찾아오면 자기 동정과 회한으로 울기 시작한다. Jake는 육체적 정열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The Sun Also Rises*는 T. S. Eliot의 *The Waste Land*와 비교된다. Hemingway 자신이 부정하긴 했지만, 4년 먼저 출판된 Eliot의 시가 이 작품에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해 보인다. 즉 Jake는 Eliot의 Fisher King이요, Hemingway의 파리는 Eliot의 런던이라고 할 수 있다. Fisher King의 안정과 변영은 그 나라의 안정과 변영을 상징했는데 Fisher King은 Hemingway의 Jake와 마찬가지로 성불구자였으며 그 결과 Fisher King의 나라 역시 아무 것도 생산해 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다. 그러나 Hemingway의 Jake와는 달리 Fisher King은 치료가 되며 그의 나라도 회복된다. 이런 측면에서 Philip Young은 *The Sun Also Rises*가 *The Waste Land* 보다 "더 절망적"이라고 평한다.¹⁷⁾ Jake의 성적 불모 (impotence)는 물론, 그가 살고 있는 도시 파리도 창녀 Georgette가 Jake에게 "모든 사람이 아프고, 나 역시 아파요."(p. 16)라고 말한 것처럼 불모의 도시로서 치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Jake는 사랑하는 여자 Brett와 함께 불모(infertile)의 도시 파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Couldn't we go off in the country for a while?"

"It wouldn't be any good. I'll go if you like. But I couldn't live quietly in the country Not with my own true love."

"I know."

17) Philip Young, "The Sun Also Rises: A commentary," in *Ernest Hemingway: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ed. Carlos Baker (New York: Scribner's, 1962), p 10.

"Isn't it rotten? There isn't any use my telling you I love you."

"You know I love you"

"Let's not talk. Talking's all bilge ." (p. 55)

그러나 Brett는 함께 떠나자는 Jake의 허무한 제안을 거절한다. Jake와 Brett 둘 다 그들에게 우정 이상의 관계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Jake에게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Brett의 존재는 Jake에게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고통이기도 하다. Brett는 Jake에게 끊임없이 그의 상처를 상기시켜 주는 그런 존재였으며 그가 부딪쳐 극복해야 할 약점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Jake는 사랑이 불가능하게 된 전쟁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난 뒤 성적 불구라는 비극적 현실을 수용하며 사회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인물이다. 그래서 Delbert E. Wylder는 그를 특수한 상황 속에 사는 특수한 인물이라 했다.¹⁸⁾ 그리고 Robert Dunn은 Jake의 현실 적응 노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Jake's given name is Jacob, after the Biblical character who wrestles all night with the angel. Jake wrestles, too, with himself and with his demons, and also with the postwar modern world. Finally he reaches an unsatisfactory peace with his life.¹⁹⁾

Jake가 Pamplona 성당에서 기도하는 장면 또한 그의 현실적응 노력을 예견하는데 도움이 된다.

I was kneeling with my forehead on the wood in front of me, and was thinking of myself as praying, I was a little ashamed, and regretted that I was such a rotten Catholic, but realized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about

18) Delbert E. Wylder, "The Sun Also Rises: The Wounded Anti-Hero," in *Hemingway's Heroes*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69), p. 31.

19) Robert Dunn, *Ernest Hemingway's The Sun Also Rises*, Barron's Book Notes (New York: Barron's Educational Series, 1984), p. 11.

it, at least for a while, and maybe never, that anyway it was a grand religion, and I only wished I felt religious and maybe I would the next time; (p. 97)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긴 하지만 믿음을 가지려는 노력과 더불어 팜프로나 Montoya의 호텔에서 첫 날 밤에 Jake가 사색에 잠겨 지나온 자신의 일들을 돌이켜 보는 장면에서 삶의 의지가 담긴 그의 인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

Enjoying living was learning to get your money's worth and knowing when you had it You could get your money's worth The world was a good place to buy in. It seemed like a fine philosophy In five years, I thought, It will seem just as silly as all the other fine philosophies I've had.

Perhaps that wasn't true, though. Perhaps as you went along you did learn something. I did not care what it was all about. All I wanted to know was how to live in it Maybe if you found out how to live in it you learned from that what it was all about (p 148)

Jake는 자신의 성불구를 괴로워하고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수용하며 인내한다. 이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며 모토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현실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사물을 사실로 평가하고 환경을 극기적으로 견디어 나가는 인생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Jake의 인생관은 Robert Cohn의 이상주의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런 면은 Wirt Williams가 Jake와 Robert Cohn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Where Jake hides emotion gracefully, Robert expresses it awkwardly; where Jake is tightly disciplined, he(Cohn) is uncontrolled ; where Jake is stoic, he is sentimental, where Jake stands for the new coolness, he is apotheosis of an archaic overstatement²⁰⁾

20) Wirt Williams, *The Tragic Art of Ernest Hemingway*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81), p. 41.

Jake가 Robert Cohn에 비해서 훨씬分別이 있고 생을 명확하게 볼 줄 안다. 그의 성불능이 인생과 신앙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했으며 때로는 지나친 감각에 입각한 가치 기준 때문에 인생의 시야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긴 했지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침착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 태도는 그의 거듭남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Jake의 거듭남은 Burguete의 낚시 여행을 통해서 시작된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불모의 도시, 파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감정의 순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적 정화에 대한 암시와 자연의 푸르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Burguete의 높은 고지대에서 Jake와 Bill은 영혼의 정화와 같은 감정 상태를 경험한다. 낚시 여행을 위해서 스페인 국경을 넘어갈 때 Robert Cohn이 조금의 관심도 없이 내내 잠만 자는 것과는 달리 Jake와 Bill은 아름다운 풍경에 접하는 순간 공감대를 형성한다.

After a while we came out of the mountains, and there were trees along both sides of the roads and a stream and ripe fields of grain, and the road went on, very white and straight ahead, and then lifted to a little rise, ... I was up in front with the driver and I turned around. Robert Cohn was asleep, but Bill looked and nodded his head. (p 93)

*The Sun Also Rises*의 낚시 여행은 즐거운 것이며 낚시터 또한 즐거운 장소로 부각된다. 이는 주인공들이 파리에서 암담하고 퇴폐적인 생활을 보내는 것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다. 파리에서는 밤이면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Jake가 스페인에서는 ‘포근하며 느낌이 좋다.’(p. 111) 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도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고 낚시 역시 Jake가 심신의 안정을 찾는데 기여한다. 물고기 떼가 노니는 강은 불모와 황무지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이다. 그래서 Fisher King인 Jake는 낚시하는 동안에 편안해진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Spilk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 . they bring health, pleasure, beauty, and a sense of order which is sorely missing in his civilized experience, they are part of a healing process, a private and imaginative means of wiping out the damages of civilized life²¹⁾

'낙시'라는 일종의 치유 과정(healing process)을 통해서 Jake는 모든 것을 정화하고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다. 즉 생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낙시 여행이 Jake에게는 행복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계속 Burguete에 머무를 수만은 없었다. 다시 현실과 직면해야 하는 Jake는 팜프로나로 돌아와 축제에 참여한다. 팜프로나의 San Fermin 축제는 이 작품의 가장 크고도 복잡한 상징이다. 남녀 주인공들은 축제의 광란에 휩싸여 축제의 절정인 투우를 관람한다. 이 작품에서 투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Dun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e bullfight is also a "moment of truth" where a man's true worth is demonstrated in a life-or-death situation. Some stand back from the bull as they stand back from life; others enter the bull's zone and are rewarded with victory or death²²⁾

인간은 살아있는 한 자신의 냉혹한 현실과 싸워야 하며 자신의 생에 대한 개인적인 도전을 극복해야만 한다. Hemingway는 인간이 제각기 자신의 과업에 대해 확실하게 용기를 가지고 임하는 한 패배하지 않는다는 인생 철학을 투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Jake를 비롯한 소수의 '열정을 가진 자' (aficionado)만이 Romero의 투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진리를 각성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순간이 비로소 자신들의 불멸성을 확신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Jake의 인간적 성숙은 축제가 끝난 후 이루어지는 San Sebastian에서의 수영 장

21) Spilka, *Ernest Hemingway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p. 21

22) Dunn, p. 79.

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Jake의 수영은 침례 의식처럼 아주 의식적으로 행해진다. 싸움으로 더럽혀진 축제가 끝나고 그는 다른 동료들과 헤어져 무절제한 사회에서 벗어나 홀로 San Sebastian의 푸른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잠시 잃어버린 자존을 지키고 심신을 회복함으로써 ‘거세우’ (steer)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는 것이다. 거세우란 원래 투우가 시작되기 전 황소를 진정시키고 투우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세된 소이다. *The Sun Also Rises*에서 Jake는 Brett를 Robert Cohn과 Romero를 거쳐서 다시 Mike에게 돌려주어 거세우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제 Jake는 자기 행위의 진실과 대면하고 불가능한 환상을 포기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후의 Brett에 대한 Jake의 사랑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Brett를 만났을 때 연인이란 감성적 관련성을 벗어 던지고 심지어 신체적 능력이 그녀와의 행복을 허락해 줬으면 하는 환상조차 갖지 않으면서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그녀를 보살필 수 있게 된다.

"Oh, Jake," Brett said, "we could have had such a damned good time together" Ahead was a mounted policeman in Khaki directing traffic He raised his baton. The car slowed suddenly pressing Brett against me
 "Yes" I said. "Isn't it pretty to think so?" (p. 247)

Jake와 Brett의 이 마지막 대화는 그리운 사랑을 잃고서 사랑을 갈구하는 여운을 한없이 남긴다. 하지만 Jake는 Brett가 그를 투쟁이로 또는 구원자로 부러먹은 그녀의 잔인성에 대해서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지도 않으며 욕설을 퍼붓지도 않는다. 이제 Jake가 Brett에게 주는 사랑은 투우사 Romero가 투우장에서 Brett에게 바쳤던, 자기상실(self-loss) 없이 주는 비타산적 사랑인 것이다.

Jake에게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Jake의 상처도 변함이 없고 Jake와 Brett의 서로에 대한 사랑도 변함이 없고, 더군다나 그들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완성에 대한 가능성도 달라진 게 없으며, Jake는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삶의 의미를 찾던 중에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를 대변하는 Romero를 만나

고 비극적인 자신의 생 앞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이다. Young도 “1차 대전 때의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면서 Jake는 참으로 결합 없는 완전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큰 불행을 극복하고 파멸로부터 비극을 초월하는 정신적 승리로 승화시킴으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다.”²³⁾고 말한다.

Jake는 남성성을 상실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남성성이라는 것은 남성다움을 판단하는 전통적 기준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전통적 기준에 의해서는 Jake의 남성다움을 판단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애와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했다. 이 힘과 용기라는 것은 Jake도 이루지 못했던 Brett와의 동침을 성공한 Robert Cohn의 그것이 아니라 투우를 통해서 보여준 Romero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아마 Hemingway는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적 정복만이 남성다움을 설명하는 필요조건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으며, 사랑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Jake와 Brett가 서로를 원하면서도 육체적 관계를 통한 사랑의 승화를 보여주지 못함을 갖고서 그들의 사랑이 비극적이며 한없이 절망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육체적 쾌락이 아닌 보다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했음을 간과한 말일 것이며, 그들의 사랑이 비극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제 1차 세계대전이라는 무의미한 전쟁이 그들에게 끼친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읽는 독자들의 가슴 깊이 각인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3) Philip Young, *Ernest Hemingway: A Reconsideratio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1966), pp. 82-88

4. 규범적 사랑 : Pedro Romero

*The Sun Also Rises*의 주요 인물들 중 현실에 몰들지 않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젊고 잘 생긴 투우사 Romero일 것이다. 그는 진정한 열정을 가진 자로서 *The Sun Also Rises*의 주요 인물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며 때로는 애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The crowd wanted him Several boys shouted at Brett the crowd was the boys, the dancers, and the drunks Romero turned and tried to get through the crowd. They were all around him trying to lift him and put him on their shoulders He fought and twisted away, and started running, in the midst of them, toward the exit. He did not want to be carried on people's shoulders. But they held him and lifted him. It was uncomfortable and his legs were spraddled and his body was very sore They were lifting him and all running toward the gate (p 221)

열 아홉이라는 젊은 나이의 Romero는 이 작품에서 Hemingway의 이상적 영웅의 구현체이며 '순수'를 대표한다. 그리고 Romero는 자신의 영웅다운 모습을 투우를 통해서 입증한다. 이 작품에서 투우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Romero에게 투우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일종의 신앙의 대상이었다. 우선 투우장은 전쟁이 종식되고 난 후 격렬한 죽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으며 투우사가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생사의 위험한 경지로 빠뜨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투우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Hemingway는 보았다. 사실 Hemingway는 투우를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The Sun Also Rises* 후반부 축제 기간 중 펼쳐지는 투우를 통해서 Jake가 고민했던 삶의 방식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axwell Geisma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t's concept of the metador, we may say, that has caught Hemingway's admiration' the dignity, courage, discipline and honor of the fighter.²⁴⁾

바로 이러한 점이 무엇인가 치열한 의식을 찾아 헤매는 Jake의 무리가 투우를 열광적으로 지켜보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투우장에서 투우사와 소는 서로의 목숨을 앞에 두고 피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순간 그들은 죽고 죽이는 적대 관계에 있다 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초월해 인생에 있어 삶과 죽음의 이중주를 구성하는 하나가 된다.(p. 220) 이렇게 Romero가 투우에 대한 사랑과 소와의 싸움에서 기술을 통해 타락하지 않는 젊은 미숙함과 원시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이 Romero가 다른 등장 인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영웅으로 등장하는 이유일 것이다. Arthur Waldhorn은 Romero를 “모범적 영웅”으로 표현하며 Jake가 추구하는 이상 바로 그것이라고 진술한다.

But it is Romero who symbolizes the truly elect, the wholly exemplary hero - brave, skilled, modest, uncompromising in his dedication to his art ... Jake's ideal - a simple harmony of God, man, and nature, life, love, and death- is Romero's reality.²⁵⁾

Romero는 자기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남성다운 투우사이며 통제와 규율의 숙련자이다. 또한 그는 이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는 도덕적, 종교적 특성의 명백한 상관물인 육체적 “청결함과 끈음” (straightness of purity)을 가진 자다. 그의 투우는 순수한 선을 유지하기에 진정한 감동을 일으킨다 완전한 통제, 차분함, 조용함, 절대적으로 순수한 선의 유지를 지니는 것이다.

24) Maxwell Geismar, "No Man Alone Now," *Virginia Quarterly Review*, 17/4 (October 1941), p. 521.

25) Arthur Waldhorn, *A Reader's Guide to Ernest Hemingwa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2), p. 110.

Romero never made any contortions, always it was straight and pure and natural in line. The others twisted themselves like corkscrews, their elbows raised, and leaned against the flanks of danger. Afterward, all that was faked turned bad and gave an unpleasant feeling. Romero's bullfighting gave real emotion, because he kept the absolute purity of line in his movements and always quietly and calmly let the horns pass him lose each time. He did not have to emphasize their closeness. Romero had the old thing, the holding of his purity of line through the maximum of exposure, while he dominated the bull by making him realize he was unattainable, while he prepared him for the killing (p. 168)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감동을 주는 Romero의 투우는 확실히 다른 투우사들과는 구별이 된다. Romero의 선배이자 동료 투우사 Belmont는 황소가 너무 커서도 안되고, 뿔이 너무 위험해서도 안된다는 조건을 두고 투우에 임한다. 즉 투우에서 위험을 줄 만한 요소를 없애 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투우장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갖지 못한다.

진정한 투우사는 투우의 과정에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잘 싸워 나가는 사람이다. 죽음의 위험을 피하거나 위험하다는 시늉을 하는 투우사는 거짓이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Hemingway의 인생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스스로를 위험한 처지에 두는 일없이 일방적으로 찢러 죽이는 투우사의 태도야말로 Hemingway가 가장 싫어하는 비겁한 행위인 것이다. 반면 Romero야말로 죽음과 위험이 뒤따르는 긴박한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맞이함으로써 Hemingway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투우 장면에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다.

When he had finished his work with the muleta and was ready to kill, the crowd made him go on. They did not want the bull killed yet, they did not want it to be over. Romero went on. It was like a course in bull-fighting. All the passes he linked up, all completed, all slow, tempered and smooth. There were no tricks and no mystifications. There was no brusqueness. And

each pass as it reached the summit gave you a sudden ache inside. The crowd did not want it ever to be finished (pp 219-220)

이런 Romero의 출현은 국외도피자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준다. Jake는 투우에서 지켜야할 모든 규범을 지키는 Romero에게 강력한 매력을 느꼈으며 Brett 역시 이러한 규범을 지키는 Romero의 순수함에 마음을 빼앗겨 그를 사랑하게 되며 Romero 역시 Brett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서로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Brett가 Romero를 소개시켜 달라고 Jake에게 부탁하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I can't help it I'm a goner now, anyway.... I've got to do something. I've got to do something I really want to do I've lost my self-respect. (p. 183)

반면 Jake는 Brett를 만난 직후의 Romero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I saw he was watching Brett He felt there was something between them He must have felt it when Brett gave him her hand He was being very careful I think he was sure, but he did not want to make any mistake (p. 185)

Brett는 Romero에게서 Jake 이후로는 최초로 자제력(self-control)을 상실할 정도의 매력을 느끼고, Romero가 그녀에게 가져다 줄 새로운 흥분과 기대 때문에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Romero는 Brett와의 첫 대면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는다. Romero의 이런 면은 Robert Cohn과의 격투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Romero와 Brett의 관계를 질투한 Robert Cohn과의 격투에서 Romero는 열 다섯 번이나 얻어맞아 쓰러지면서도 결코 굽히지 않고 결국 Robert Cohn을 굴복시킨다.

". . . The bull-fighter fellow was rather good He didn't say much, but he

kept getting up and getting knocked down again Cohn couldn't knock him out. . He'd been knocked down about fifteen times, and he wanted to fight some more. Brett held him and wouldn't let him get up. He was weak, but Brett couldn't hold him, and he got up Then Cohn said he wouldn't hit him again. Said he couldn't do it. Said it would be wicked. So the bull-fighter chap sort of rather staggered over to him So the bull-fighter fellow hit him just as hard as he could in the face, and sat down on the floor. . . It seems the bull-fighter chap was sitting on the floor. He was waiting to get strength enough to get up and hit Cohn again (p. 202)

Romero의 Brett에 대한 사랑은 Robert Cohn의 Brett에 대한 사랑과는 차이가 있다. Romero와 Robert Cohn은 이 작품에서 가장 대조적인 인물들인데 그들의 사랑의 모습도 대조적이며 이 둘을 비교해봄으로써 Romero의 사랑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Robert Cohn이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 것도 못하는 반면 Romero는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흥적 감성에 따라 행동하는 Robert Cohn과 달리 Romero는 항상 자신의 행동 코드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래서 Spilka는 이 상반된 두 사람의 충돌을 'Code Hero' 와 'Romantic Hero' 의 대항이라고 비교한다.²⁶⁾

Romero와 Robert Cohn의 충돌은 도덕과 육체, 자존심과 기사도적 정신 사이의 충돌이었다. Romero는 그의 존엄에 대한 모욕을 배상받기 위해 싸운다. 비록 심히 구타당하기는 하지만 그의 정신만은 그의 적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반면에 Robert Cohn의 정신은 완전히 파괴된다. Romero의 행동 코드는 바로 이런 수용과 인종의 경지를 넘어선 극복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절박한 상태에서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비굴함이 없는 인간이 되도록 용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이것이 바로 Hemingway의 '규범적 영웅' 인 것이다.

안면의 부상을 무릅쓰고 다음날 투우장에 나타난 Romero의 얼굴은 입술이 부풀어오르고 얼굴 색이 달라져 있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 그러나 투우장에서 보여준 그

26) Spilka, *Hemingway*, p. 127

의 행동은 씩씩하고 훌륭했다.

Pedro Romero had the greatness He loved bull-fighting, and I think he loved the bulls, and I think he loved Brett. Everything of which he could control the locality he did in front of her all that afternoon Never once did he look up He made it stronger that way, and did it for himself, too, as well as for her Because he did not look up to ask if it pleased he did it all for himself inside, and it strengthened him, and yet he did it for her, too. But he did not do it for her at any loss to himself. He gained by it all through the afternoon. (p 216)

Romero는 투우를 통해 뭔가 인격적인 것을 초월한 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Romero는 Brett를 위해서 싸웠으며 또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녀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싸운 것은 결코 아니었다. 보통 누군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자 할 때는 자신의 품위를 잃고 종종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Romero가 검은 옷을 입고 소와 대결하기 위해 섰을 때, 그는 우아함과 자제와 남성이 갖는 성실을 겸비한 채 자기 기술을 완전히 행하는 숙련된 투우사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으며 이 순간이야말로 진리를 각성하는 순간이며 자기의 불멸성을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Romero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남자다움을 보여준다. Robert Cohn은 연인의 뒤만 쫓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남들에게 그것을 과시하고, 그 연인을 위해 자기의 품위를 잃지만, Romero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애정의 행위를 그 여인에게 보낸다.

Romero took the ear from his brother and held it up toward the president. The President bowed and Romero, running to get ahead of the crowd, came toward us. he leaned up against the barrera and gave the ear to Brett. He nodded his head and smiled The crowd were all about him. Brett held down the cape (p. 220)

폭력 한가운데 점철된 침묵 속에서 그는 Brett와의 혼란스러움도, Robert Cohn

과의 추한 장면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의 기술을 성실히 행하여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Brett에게 찬사를 보내며 자기의 힘을 북돋운다. 그 결과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Brett에게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었던 귀중한 선물을 바칠 수 있었다. 그는 여성과 독립되어 남자다움을 유지해갈 수 있는 남성으로서 결코 조금도 그의 품위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해서 그 여자 때문에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다거나 그 여자 성격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Brett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규범에 따라서 행동했으며, 자신의 이상이 Brett가 받아들이기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는 순순히 떠난다. 결국 자기를 잃지 않고 애인에게 보여준 이 투우의 연기는 타락하지 않은 Romero가 갖고 있는 비타산적 사랑의 표현이다. Jake가 Romero로부터 배운 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방향과 이런 비타산적인 사랑에 집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Romero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담긴 옳은 행동을 고수함으로써 Brett에 의해서 타락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Brett를 떠나면서 Robert Cohn처럼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때리는 일도 없었으며 Mike처럼 투덜대지도 않는다. Romero는 어떤 상황하에서도 자신의 신념이나 규범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이도 어리고 기술도 부족하나 Robert Cohn과의 격투에서 자기의 고결함을 곳곳하게 지켰으며 투우장에서는 완벽 그 자체였다. 이렇게 그가 남성으로서 독립된 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국외도피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 내적인 힘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성숙하게 하는 그런 힘이었다.

IV. 사랑과 자아인식

Hemingway의 주요 작품에 나오는 여성 주인공과 남성 주인공 사이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보다는 피부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장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육체적 결합을 통한 “하나되기 행위”(act of becoming one)²⁷⁾를 성취함으로써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The Sun Also Rises*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부각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파국으로 끝난다. 설령 육체적인 결합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성숙하지 못한 결합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Brett와 Robert Cohn의 관계나, Brett와 Jake의 관계도 그렇고 Brett와 Romero의 관계에 있어서도 명쾌하고 행복한 결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작품이 더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며 허무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각자는 고통스러운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한층 변모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잃었던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상적 영웅이면서 완벽함을 대표하고 다른 인물들에게 변화의 계기를 가져다 주는 Romero를 제외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결합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이 어떻게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회복하고 성숙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Brett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녀는 34세의 영국 여인으로 아름답지만 정신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다. 전쟁 중 간호사로 지원했다가 순수한 사랑을 경험했지만 남자가 죽은 뒤로 그녀는 이 남자, 저 남자와 별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작품에서는 정신적 불모의 여성으로 여겨진다. 그녀는 또한 Jake를 사랑하나 Jake의 육체적 불모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며, 또 이들의 불완전한 관계는 Jake와 Brett 모두를 좌절시킨다.

그녀는 그 당시 전통적 가치관에 반하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외모가 나타내는 남성성, 흡연, 음주, 이혼, 난잡한 성관계 이외에도 무종교성, 도덕적 신념의

27) 김 병 철, 『헤밍웨이 문학의 연구』 (서울: 울유문화사, 1982), p. 376.

상실 등은 그녀가 무책임하고 타락한 여자임을 말해준다. 또한 스페인 축제에서는 댄서들에 둘러싸여 마차 축제의 여신을 연상시키며 남자들을 모으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사실 그녀는 이 작품의 주요 남자들과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다. Robert Cohn, Jake, Mike, Bill, 심지어는 Romero까지 그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Robert Cohn은 그녀를 일컬어 남자를 돼지로 만들어버리는 요부(circe)에 비유했으며, 많은 비평가들이 그녀를 남자를 거세시키는 사악한 여자라고도 했다.

그러나 난잡한 정사와 Jake의 사랑에 대한 고통을 정당화시켜 방탕한 생활을 해왔던 Brett도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Romero와 사랑을 갖고자 하나 Romero가 무심코 밝히는 여성성에 대한 호소를 듣고 자신을 깨닫기 시작한다. 요컨대 Romero와의 관계를 통해서 요부에서 여자로 복귀하는 것이다. 무질서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서는 첫 단계로 팜프로나에 전보를 보내서 Jake를 불러 “다시는 불결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I won't be one of those bitches)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게 된다. 그녀는 Romero와의 사랑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에 눈을 뜨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녀에게도 행동 코드가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Lord Ashley, Mike, Robert Cohn, Jake, Romero와의 관계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그녀가 보여준 도덕적 선언은 그녀가 잃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삶의 기준이었으며 그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You know I feel rather damned good, Jake"

"You should."

"You know it makes one feel rather good deciding not to be a bitch."

"Yes."

"It's sort of what we have instead of God."

"Some people have God," I said. "Quite a lot"

"He never worked very well with me." (p. 245)

여주인공 Brett가 여성성을 상실하여 이 작품 속에서 그녀의 성적 역할이 혼동스러웠다면, 남자 주인공 Jake는 성불구자로서 남성성을 상실한 비극적 인물이며 또 다

른 불모의 상징이다. 따라서 여성성을 상실한 여자와 남성성을 상실한 남자의 사랑이라는 이들의 사랑을 두고 Spilka는 전쟁과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랑의 행위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사회에는 사랑이 죽었다고 말하여 Jake와 Brett는 다같이 전쟁의 상처를 입어서 이 연인들에게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²⁸⁾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전환을 맞이한다. 파리와는 다른 스페인에서의 경험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다. 이 둘의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Romero이다. Brett와 Jake는 Romero와 그의 투우를 통해서 각각 잃어 버렸던 자아를 돌아보게 된다. Brett는 잃어 버렸던 여성성을 되찾기 시작하고 Jake는 자신의 상실된 남성성을 담담하게 받아들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승화된 비타산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Jake는 투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열정의 소유자’(aficionado)이다. 그래서 그는 투우로 대표되는 ‘죽음을 인내하는 법’(how to bear death)에 대한 태도를 Romero의 투우를 통해서 배운다. 그러나 그도 잠시 팜프로나의 열정의 소유자이자 오랜 친구인 Montoya의 신의를 저버리고 Brett를 Romero에게 소개시킨다. 여기서 독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수하지 못한 Jake를 두고 그의 진정한 약점은 육체적 불구가 아니라 정신적, 의지적 불구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Jake가 Brett를 투우사 Romero에게 안내해주는 투장이 역을 맡은 뒤부터 종전의 소극적인 역할을 적극화시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Robert Cohn이 Brett를 빼앗기자 완력에 호소하여 Jake와 Mike 그리고 그녀를 빼앗아 가버린 Romero와 각각 싸움을 벌인 뒤부터 Jake의 태도는 명백해진다. 축제가 끝날 무렵에 이 작품의 사건과 로맨스는 열광적이고 바보스러운 절정에 도달한다. 축제가 끝나자 Jake의 마음도 진정되고 청결해지며 정화된다. 따라서 Brett에 대한 Jake의 사랑은 미묘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성을 잃은 열정이 쓰라린 자각의 시기를 거쳐 책임과 보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계에 도달한다. 즉 Brett에 대한 Jake의 열정은 완전히 억제

28) Spilka, *Ernest Hemingway's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p. 137.

되어 진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속으로 잠입하여 그 열정이 비타산적인 사랑으로 대체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야 Jake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이 절망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하려는 Brett와 Jake의 노력은 악몽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Spilka의 "death of love" 설보다는 Robert W. Lewis, Jr 의 "the love never dies" 29)라는 견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겠다.

여기서 혹자는 Robert Cohn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이탈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였지만 Jake와 Romero에게 용서를 비는 그의 모습은 거듭남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I just couldn't stand it about Brett. I've been through hell, Jake. It's been simply hell. When I met her down here Brett treated me as though I were a perfect stranger. I just couldn't stand it. We lived together at San Sebastian. I suppose you know it. I can't stand it any more."

"... Please say you forgive me, Jake."

"Sure," I said "It's all right."

"So long, Jake," he said "You'll shake hands, won't you?"

Sure. Why not?" (pp. 194-195)

Robert Cohn은 Brett와의 일이 참을 수 없었고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처럼 느꼈으며 그녀가 San Sebastian에서 같이 살던 때를 생각해서 자기만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 대한 울분 때문에 Mike와 Jake 그리고 Romero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Robert Cohn은 이 같은 내용을 Jake에게 말하면서 깨끗이 용서를 구하고 Jake는 그를 관대하게 용서한다. 이제야 비로소 Robert Cohn은 Brett에 대한 사랑의 환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미련 없이 Brett를 포기하고 다음날 아침 파

29) Robert W. Lewis, Jr., ed., "Tristan or Jacob: The Choice of *The Sun Also Rises*," *The Modern American Novel: Essays in Criticism* (New York: Random House, 1966), p. 101.

리로 떠나는 Robert Cohn의 모습은 그의 인간성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준다.

작품의 구조상 이야기는 파리라는 도시에서 시작하여 스페인의 한 시골을 거쳐 다시 또 다른 도시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끝이 난다. 이는 불모의 땅(waste land)에서 소생의 땅(bountiful land)을 거쳐 다시 불모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인 Brett와 Jake는 변모된 모습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다. 순진한 투우사 Romero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실마리를 얻게된 Brett와 팜프로나에서의 생과사를 초월한 하나의 엄숙한 피의 제전인 투우를 통해서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된 Jake는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대지도 영원하듯 다시 소생한 것이다.

이 작품은 Lost Generation의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념 상실, 무감동, 현실 문제나 사회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고립된 개인의 내적 세계를 그려나가고 있어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The Sun Also Rises*라는 작품 제목의 배경이 되는 구약성서 전도서의 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다음 구절은 Brett와 Jake가 보여준 사랑이 상실이 아닌 재생을 의미함을 함축한다.

"One generation passeth away, and another generation cometh; but the earth abideth forever. . . The sun also ariseth, and the sun goeth down, and hasteth to the place where he arose. . . The wind goeth toward the south, and turned about unto the north: it whirleth about continually, and the wind returneth again according to his circuits. . . All the rivers run into the sea: yet the sea is not full: unto the place from whence the rivers come, thither they return again"

유한한 인간 존재에 비해 자연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 존재의 공허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 같다. 하지만 Hemingway 자신은 *The Sun Also Rises*의 궁극적 메시지는 인간 존재의 공허함이 아닌 "지구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지구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가졌기에 조금도 공허에 대해 염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30)

Lewis, Jr.도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게 풍기기는 하지만,

*The Sun Also Rises*는 사랑의 상실이 아니고 사랑의 재생을 예시해 준다고 강조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us one can see Hemingway destroying romantic illusions much easier than one can see the construction of positive ideals. In terms of the later Hemingway as well as in terms of the second, more hopeful epigraph from Ecclesiastes, it is possible to read into *The Sun Also Rises* a foreshadowing of the rebirth of love but mainly the impression of the novel is negative. Loss rather than external return and renewal is clearly more strongly felt, in spite of the title and the Biblical epigraph. The irony seems a natural shield for this loss as well as for the novelist's and the hero's sensitivity, self-pity, and lack of a constructive, positive faith to fill the void.³¹⁾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방황과 사랑은 일종의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발견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숙을 위한 진통과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방황하게 했던 처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여전히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 지니고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달라진 시각이 인생에 대한 체념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했으며 사랑의 대상이 자신들이 집착했던 그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일지라도 예전과는 다른 진지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한다. 이러한 점은 *The Sun Also Rises*의 주제가 사랑의 상실이나 죽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랑의 탄생이며 사랑의 재생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0) Baker, p. 81.

31) Lewis, p. 64.

V. 결 론

이상에서 *The Sun Also Rises*는 1차 세계 대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가 전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 관한 기록이며 특히 그들의 사랑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문제가 주로 다뤄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주인공 Brett를 두고 벌이는 남자 주인공들의 사랑은 그들의 기본적인 배경과 기질 차이로 인해서 각각 다른 양상을 띤다.

여주인공 Brett는 그 당시 지배적이었던 가치관에 반하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외모가 나타내는 남성성, 그녀의 흡연, 음주, 이혼, 복잡한 이성관계, 무종교성 등이 바로 그녀의 타락성과 퇴폐적 측면을 말해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면들은 전쟁의 영향이며 사회가 가져다준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전쟁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버리는 아픔을 겪었고 그 후 만나는 남자들도 전쟁의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작품에서 그녀의 퇴폐적인 면이 부각되는 것은 아마 그녀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남자들과 육체적으로든 아니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Robert Cohn, Jake, Romero 등이 그녀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이 작품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인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렇게 구원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고 더욱이 퇴폐적이고 순수해 보이지 않는 Brett였지만 여러 남자를 거쳐 마지막으로 Romero와의 사랑을 통해 잃었던 자아를 되찾기 시작함으로써 타락한 여자에서 구원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Romero가 무심코 밝히는 여성성에 대한 호소는 그녀의 잃어 버렸던 자아를 되돌아 보게 했으며, 사랑하지만 자신이 Romero를 타락시킬까 봐 그를 떠나보내는 모습에서 그녀에게도 나름대로의 행동 코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런 불결한 사람(bitches)이 되지 않겠다.”(p. 243)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의지와 성숙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Robert Cohn은 낭만주의자로서 이 작품의 낭만적 사랑을 대표한다. 그는 Brett와의 관계에서 거의 맹목적으로 사랑에 대한 환상을 고수한다. 그러나 그

의 낭만성은 Brett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부터 외면을 당하여 이 작품에서 국외 도피자들의 무리와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 Brett와의 일이 참을 수 없고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경쟁자들인 Mike, Jake를 차례로 때려 눕히나 끝내 Romero만은 굴복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Jake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련 없이 Brett를 떠나는 Robert Cohn의 모습은 그의 인간성을 한층 돋보이게 해준다.

여주인공 Brett가 여성성을 상실하여 이 작품 속에서 그녀의 성적 역할이 혼동스러웠다면 남자 주인공 Jake는 전쟁 중 얻은 상처로 성불구자가 되어 남성성을 상실한 비극적 인물이다. 여성성을 상실한 Brett와 남성성을 상실한 Jake의 사랑은 예고된 비극이었던지도 모르겠다. 서로를 사랑하나 서로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 인해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상당히 절망적이고 안타깝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전환을 맞이한다. 그 둘은 스페인에서의 경험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다. 이 둘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Romero이다. Brett와 Jake는 Romero와 그의 투우를 통해서 각각 잃어 버렸던 자아를 돌아보게 된다. Brett는 잃어버렸던 여성성을 되찾기 시작하고 Jake는 자신의 상실된 남성성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승화된 비타산적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Hemingway의 '이상주의적 영웅(ideal hero)'으로서 다른 인물들로부터 존경과 찬사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투우사 Romero는 투우에 필요한 완벽한 자질과 규범을 지니고 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의 모습은 Brett와의 사랑에서도 나타난다 퇴폐적인 Brett를 사랑하면서도 투우에서 나타나는 모든 규범과 자기를 잃지 않는 Romero의 순수와 용기 있는 모습은 Robert Cohn이나 Jake와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Brett를 떠나보내지만 그녀를 퇴폐성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Robert Cohn, Jake, Romero 중 어느 누구도 Brett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Lost Generation의 사랑의 상실을 다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Lost Generation이라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념 상실, 무감동, 현실 문제나 사회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의 고립된 개인의 내적 세계를 그려 나가고 있어 작품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 주인공들이 허무하고, 모든 이상을 상실한 무목적적인 1차 대전 후의 1920년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퇴폐적이고 때로는 절망적이며, 맹목적인 그들의 낭만적인 사랑이 자아인식과 성숙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사랑의 재생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삶 속에서 죽음’(death-in-life)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삶’(life-in-death)을 찾는 Lost Generation의 기본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며 Hemingway의 궁극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I . Text :

Hemingway, Ernest. *The Sun Also Ris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4

II . Secondary Sources :

Aldridge, John W. *After the Lost Generation*. New York: McGraw-Hill, 1951.

Backman, Melvin. "The Matador and the Crucified" In *Hemingway and His Critics*. Ed., Carlos Baker. Modern Fiction Studies, 1955.

Baker, Carlos *Hemingway: The Writer as Artis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2.

Baker, Sheridan. *Ernest Hemingwa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7.

Cowley, Malcom. *Exiles Return*. New York: Viking Press, 1951.

_____. Ed., *The Portable Hemingway*. New York: Viking Press, 1944.

Dunn, Robert. *Ernest Hemingway's The Sun Also Rises*. Barron's Book Notes. New York: Barron's Educational Series, Inc., 1984.

Farrel, James T. "The Sun Also Rises." In *Ernest Hemingway: The Man and His Works*. Ed., John K. M. McCaffery.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56.

Geismar, Maxwell. "No Man Alone Now." *Virginia Quarterly Review*, 17/4. October, 1941.

Lewis, Robert W. Jr. "Tristan or Jacob : The Choice of *The Sun Also Rises*." In *The Modern American Novel: Essays in Criticism*. Ed., New York: Random House, 1966.

- Mann, Klaus. "Rev. of A Farewell to Arms," *New Swiss Review*, 2
- Scott, Arthur L. "In Defense of Robert Cohn," *College English*, 8/6.
March, 1957.
- Spilka, Mark "The Death of Love in *The Sun Also Rises*." In *Hemingway*.
Ed., Robert P. Week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2.
- _____. "The Death of Love In *The Sun Also Rises*." In *Ernest
Hemingway: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Ed., Carlos
Bak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2.
- Waldhorn, Arthur. *A Reader's Guide to Ernest Hemingwa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2.
- Williams, Wirt. *The Tragic Art of Ernest Hemingway*.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81.
- Wylder, Delbert E. "*The Sun Also Rises*; The Wounded Anti-Hero."
In *Hemingway's Heroes*.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69.
- Young, Philip. *Ernest Hemingway*.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66.
- _____. "*The Sun Also Rises*: A commentary." In *Ernest
Hemingway: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Ed., Carlos
Baker. New York: Scribner's, 1962.
- _____. *Ernest Hemingway: A Reconsideration*. University Park:
Pensylvania State Univ. Press, 1966.
- 김 병 익, "변모의 형상: Hemingway 사상의 변모과정과 그 요인,"
「Ahemeum」, 제 2집 (1961, 2).
- 김 병 철, 『헤밍웨이 문학의 연구』. 서울: 올유문화사, 1982.

<Abstract>

A Study on Love Types and Self-Consciousness in *The Sun Also Rises**

Kang, Eun-Young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Jong-Min

Hemingway's *The Sun Also Rises* is a record about the youths who participated in World War I directly or indirectly, were isolated from the postwar world and got lost in their society.

Brett lost her first lover in the war and lost womanliness. Her loss of womanliness represents her psychological damage. And she lives a decadent life spending most time with many guys. She was also a main source of conflict in the novel, mainly by her love affairs with the male characters in *The Sun Also Rises*. She is loved by Robert Cohn, Jake and Pedro Romero.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types of their loves are different because of male characters' backgrounds and personalities.

Robert Cohn is a romantic guy and his love toward Brett represents a romantic love in *The Sun Also Rises*. He doesn't lose his illusion of love toward Brett under any circumstances. But his illusion is not accepted by Brett as well as other characters in the novel.

Jake also loves Brett. But he can't consummate his love with Brett becaus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of his physical wound. That's why his love toward Brett seems hopeless and tragic. They love each other but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make love. The way they love each other is very miserable and pitiful.

Romero, Hemingway's ideal hero, is the only one who is respected, praised and watched by other characters. He has good qualifications and every standard as a perfect bull fighter. His perfection is also seen in his love toward Brett. He loves Brett without self-loss, just as he does in bull fighting. His innocence and courage are compared with Robert Cohn's and Jake's. Moreover, he plays an important role in Brett's rebirth, letting Brett leave him.

Apparently *The Sun Also Rises* deals with the Lost Generation's lost love in that nobody gets a happy ending with Brett. However, the experience of bullfighting and Romero change them. They are not what they used to be. They come to take their lives seriously with self-consciousness. This is a rebirth of love, not lost lov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thematic concern in *The Sun Also Rises* is optimistic, not pessimistic.

